

## 서론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의 하나로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유대교적인 서신이다. 야고보서가 권면하는 생활은 모든 면에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생활이다. 사실,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가혹하다. 예를 들어 ‘루터’ (Luther)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이라고 혹평하였다. 특히 바울의 ‘오직 믿음’ 의 교리에 배치되는 서신이라고 평가하였는데, 그의 혹평은 바로 이 갈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야고보서와 바울서신 사이에는 어떤 상충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는 견해가 최근에 지배적이다.

즉,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 논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못 박고, 성도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의 칭의 교리를 보완해 준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마태의 교훈과 아주 흡사하다(마 7:22). 따라서 ‘루터’ 의 혹평과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적인 종교, 곧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약 2:22)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를 확립시킨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 I. 야고보서의 역사적 배경

### 1. 저자

본 서신의 서두에서 저자는 자신이 야고보라고 선언한다. 신약성경에서 야고보라 불리우는 사람은 여럿 있는데

- ①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마 10:2; 막 3:17; 눅 6:14)
- ② 알패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마 10:3; 막 3:18; 행 1:13)
- ③ 주의 형제 야고보(마 13:55; 갈 1:19)
- ④ 마리아의 아들이며 요셉의 형제인 야고보(마 27:56; 막 15:40; 눅 24:10).
- ⑤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눅 6:16; 행 1:13) 등이다.

따라서 본 서신의 저자 문제는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야고보들 중에서 알패오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는 동일인물로 간주되며,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큼 저명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을 저자 문제에서 논외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중 하나로 좁혀지게 된다.

#### (1)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인 야고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열두 제자들이 모두 주님과 밀접히 교제하고 있었으나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제자보다 더 뛰어난 제자였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그 뛰어난 야고보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저자로 보는 이유는 첫째, 예수의 교훈과 침례 요한

의 교훈 등과 유사한 표현과 내용들이 언급되므로 저자는 그들의 교훈을 친히 들은 예수의 초기 제자일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약 2:1에 언급된 ‘영광의 주’란 표현은 벨후 1:16~18과 상통하므로 저자 자신이 변화산의 영광을 목격한 인물일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야고보서에서 저자는 시기와 다름을 반복해서 경계하는데 이는 저자가 주의 보좌 오른편과 왼편을 구하다가 그리스도께 질책을 받은 경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본 서신의 저자로 간주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그가 죽은 연대가 이르다는 점(AD 44)과 이 서신이 기록되던 당시에 교회 내에는 두드러진 야고보가 둘 또는 그 이상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뿐이었음을 암시하는 약 1:1의 부가적인 사실로 인해 매우 희박해 보인다.

## (2)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그는 네 번이나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신원이 분명해졌다(마 10:3; 막 3:18; 눅 6:15; 행 1:13). 이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막 15:40)와 동일한 인물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패오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으며, 그는 또한 요셉이라는 한 형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마 27:26; 막 15:47, 16:1; 눅 24:10). 그러나 다른 곳에서 이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요 19:25). 따라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결론짓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작은 야고보”라 불리우던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름 그대로 저명하지 못했으므로 본 서신의 저자로는 부적당하다 하겠다.

## (3)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라는 견해에 대한 외증은 매우

유력하다. 열두 사도를 통해 이방인에게 교훈으로 주신 교훈집(Didache), 바나바의 서신,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헤르마스 목자서 등에서 야고보서를 인정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듯한 유사점들이 다양하게 발견 되었다. 또한 ‘이레니우스’ (Irenaeus), ‘테오빌로’ (Theophilus), ‘오리겐’ (Origen), ‘저스틴’ (Justine), ‘터툴리안’ (Tertullian),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Clement) 등 1~3세기의 저술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야고보서를 인용하거나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들 외증들은 거의 본 서신의 저자가 야고보임을 강조한다.

한편 야고보서의 저자 문제와 관련된 내증을 찾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왜냐하면 저자는 자신이 주의 형제라는 단서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본 서신의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체험하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와와의 영적관계가 중요했지 육적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인다. 또한 저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으로 본 서신을 기록하였던 듯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주의 형제임을 굳이 역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Meyer). 그러나 본 서신에서 저자가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증거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

먼저, 야고보서에 넘치는 유대적 색채는 저자가 유대인이며, 당시 유대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인다.

둘째,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의장(행 15장)이었고, 거기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연설은 본 서신과 현저한 공통점을 보여준다(행 15:13~29).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야고보를 살펴보면

- ①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자신의 출옥 경위를 야고보에게 보고하라고 사람들에게 지시하였다(행 12:17).
- ②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회 총회에서 사회를 보았고

결의사항을 선포하였다(행 15:13,19).

- ③ 바울은 자기의 사업에 관해 야고보에게 보고하였다(행 21:18).
- ④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갈 2:9).
- ⑤ 이 야고보가 또한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아마도 그가 장차 감당할 책무에 관한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그에게 나타나신 바 있는(고전 15:7) 바로 그 야고보일 것이다.
- ⑥ 마지막으로 바울은 초기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세 사람을 열거하면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들고 있다(갈 2:9).

셋째, 야고보서와 산상수훈은 공통점이 매우 현저하다. 이는 저자가 주의 교훈을 직접 들었으며 예수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임을 시사한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야고보가 당시의 전반적인 교회를 향하여 자기를 소개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약 1:1)라고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 (4) 1세기 말경에 활동했던 또 다른 야고보로 보는 견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유대 기독교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본 서신을 기록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견해에 반대하여 진보적인 학자들은 본 서신의 저자를 1세기 말경에 활동했던 익명의 기독교인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저자가 헬라어 문장력에 상당한 재능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는 어휘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문체는 의식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끄는 윤리적 연설로 알려진 신랄한 공격형(diatribе) 헬라식 문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에 관하여 알려진 것으로는 그는 갈릴리의 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문화적인 배경이 철저히 유대적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작품을 쓸 만한 배경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로, 약 2:14 이하에 언급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의는 바울이 전

도하던 시기에서 상당히 긴 시간적인 간격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역사적 배경의 문제로서 야고보서에 언급된 사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의 형제 야고보의 행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엄격한 유대주의 신봉자인 사도행전의 야고보가 ‘자유의 율법’을 말하는 야고보와 같은 인물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볼 때 주의 형제 야고보를 저자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 2. 수신자

야고보서의 서두에 나타난 표현에 따르면 본 서신의 수신자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 (약 1:1)라고 한다. 하지만 유대인의 지파 구분은 기독교 시대 이전에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서두의 열두 지파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흠어진 자’는 당시 헬라세계에 흠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별명이었으며,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죄 조차도 유대인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죄이다. 또한 완전케 하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도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법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가 유대인의 열두 지파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학자들은 본 서신의 수신자를 ‘참된 이스라엘’ 혹은 ‘영적 이스라엘’로 생각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이해한다.

## 3. 역사적 배경

이 편지서에 나타나 있는 많은 지리적인 암시들은 그것의 기록장소가 팔레스타인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케 한다. 그러한 추측의 근거는 그 기자가 기름과 포도주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한 나라에 살았다는 것, 그는 바다

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 그 근처에는 소금과 쓴 샘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은 가뭄을 탔고, 그리하여 비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 등을 유추하게 한다.

이 편지서의 기록연대는 교회 내에 오직 한 사람의 두드러진 야고보가 있게 된 때,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한 AD 44년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야고보서의 기록목적은 실제적이며 윤리적이다. 야고보서의 요지는 행위와 순종에 관한 교훈이다. 율법은 생활 속에 적용되고 정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편지서의 전반적인 취지는 교리를 강조한 나머지 도외시되는 신앙인들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건전한 그리스도교 윤리관을 확립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교가 모든 진정한 유대주의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 4. 주제

이 편지서는 진정한 산 믿음이 제자의 삶에서 어떤 결과 또는 행위를 산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인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편지서 전체를 통하여 강조된 사항은 참된 종교의 양상과 효과와 결과를 거는 것 종교의 그것들과 대조시킨 데 있다. 또한 야고보서는 공관복음과 공통되는 본문을 많이 함축하고 있다. 특히 예수의 산상수훈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 이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더욱이 공관복음의 실천적인 권면들이 야고보서에서 강력한 명령형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야고보서는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들의 관계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일련의 테스트로서 믿음의 특성들을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나 지적인 것이 아닌 실천이며 행함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가르친다. 한편 야고보서는 예수의 산상수훈에 대한 최상의 주석으로 간주되는데 이 또한 야고보서의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이 편지서에는 바울의 기록들과 평행을 이

루는 구절들(약 1:22; 롬 2:13)과 베드로의 기록들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들(약 4:7; 벰전 5:8,9)이 많이 있다.

- 야고보서와 공관복음서 비교 -

야고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5; 4:3	7:7		11:9
1:6	21:21	11:23,24	
1:9,10; 2:5	5:3		6:20
1:17	7:11		11:13
1:20; 5:9	5:22; 7:1	13:29	
1:22	7:24		6:47
1:23	7:26		6:49
2:6			18:3
2:13; 3:17	5:7,9; 6:15		
2:14~26	25:31~46		
3:1~12	12:36,37		
3:12	7:16		6:44
3:18	5:9		
4:4	6:24		13:13
4:9	5:4		6:25
4:10	23:12		14:11; 18:14
4:13~15	6:25,34		
4:17			12:47
5:1			6:24
5:2	6:19,20		12:33
5:5			16:19
5:7		4:16~29	
5:10,11	5:11,12		6:23
5:12	5:33~37		
5:17			4:25
5:19,20	18:15		7:3



## 5. 야고보서의 종말론

야고보서에서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은 약 5:8,9에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그것은 두 문장으로 명시되었는데, 하나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다.

첫째 문장이 주의 강림의 시간적인 절박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둘째 문장은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는 심판자의 모습에 주목하게 한다. 즉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자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현재는 곧 마지막 시간이다.

부자들은 눈이 멀어서 이러한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말세에” (약 5:3),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날, 곧 “도살의 날” (약 5:5)을 위하여 재물을 모은다. 이 “도살의 날” 은 부자들의 욕망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야고보는 이들이 모은 재물이 마지막 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리라고 선언한다(약 1:10,11; 5:1~3).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현재는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는 시련의 시간으로서 주어지는데 이 시기에 교회는 인내한 가운데 자신을 지켜야 한다(약 1:2~4,12; 5:7~11).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인내” (patience)를 가지라는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권면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교회는 말씀의 근본적인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능동적인 부름을 받았다. 즉 교회는 마지막 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생동적인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동화된 믿음’ 이야말로 약 1:18의 “첫 열매” 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화된 믿음’ 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개요

### I. 인사 1:1

### II. 시험과 유혹 1:2~18

- A. 인내와 지혜의 필요성 1:2~8
- B. 세상적인 고난을 당할 때나 존귀를 누릴 때에도 참음 1:9~12
- C. 시험과 유혹의 근원 1:13~18

### III. 참된 종교의 증거들 1:19~27

- A.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듣기 1:19~22
- B. 듣기도 하고 행하기 1:23~27

### IV. 초기교회에 있었던 공통적인 위험들에 대한 경고 2:1~5:6

- A. 사람을 외모로 취함에 대하여 2:1~13
- B. 단순한 믿음의 공언에 대하여 2:14~26
  - 1.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함 2:14~20
  - 2. 행함을 낳는 진정한 믿음의 실례들 2:21~26
- C. 혀가 짓는 죄에 대하여 3:1~18
  - 1. 특히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혀를 잘 조정할 것 3:1,2
  - 2. 혀를 잘 사용한 경우와 잘못 사용한 경우에 대한 예증들 3:3~12
  - 3. 혀의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행위에 대한 권면 3:13~18
- D. 형제들 사이의 다툼과 싸움에 대하여 4:1~17
  - 1. 다툼의 근원과 자기추구 4:1~4
  - 2.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권면 4:5~10
  - 3. 비방을 하지 말라는 권면 4:11,12
  - 4.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권면 4:13~17

E. 부정한 이득과 재물의 오용에 대하여 5:1~6

V. 마지막 권면 5:7~20

A.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내가 필요함 5:7~11

B. 적절한 행위가 언제나 필요함 5:12,13

C. 병든 자들을 돕는 일에 기도가 유효함 5:14~18

D.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는 권면 5:19,20